The Korean Journal of Old Testament Studies 100 (2026): 119-151
https://doi.org/10.24333/jkots.2026.32.2.119

다윗-솔로몬 왕국 재고하기:
친족 기반 통치, 지파 제도, 군장국형 지도력, 그리고 초기 행정체제로 특징지어지는 전환기 반유목적 다중 중심적 왕국*

이삭(연세대)

1. 서론: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이해를 위해서

20세기 중반까지 레반트 고고학과 고대근동학과 성서학계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은 대체로 역사적 실체로 인정되었다. 윌리엄 올브라이트(W. F. Albright), 존 브라이트(John Bright), 조지 라이트(G. E. Wright) 등 고전적 성서고고학자들은 성서를 신뢰할 만한 역사 기록으로 간주하며, 예루살렘, 하솔, 므깃도, 게셀 등에서 발견된 거대한 성벽과 건축 구조물 등을 솔로몬의 건축 사업(왕상 9:15)과 연관지어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의 증거로 해석했다. 이 관점은 두 왕을 기원전 10세기 역사적 인물로, 그들의 왕국을 고대 근동의 다른 제국들과 비교 가능한 영토국가(State) 혹은 제국(Empire)로 파악하는 근거가 되었고 1970년대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임 (NRF-2022S1A5B5A16050709)

www.kci.go.kr

까지 형성된 학계 담론의 주류를 차지했다.[1]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학계의 다윗과 솔로몬 왕국에 대한 입장과 평가는 급격히 변했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 '코펜하겐 학파(Copenhagen School)' 혹은 성서의 최소 부분만을 역사적 사료로 인정하는 '최소주의자(Minimalists)'들로 불리는 학자들이 기존의 역사적 전제를 근본적으로 흔들었다.[2] 이들은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 서술하는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이 기원전 10세기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배경을 반영하는 동시대 자료가 아니며 기원전 7-5세기 — 특히 요시야 시대 혹은 바빌론 포로기 이후 — 에 서술, 편집된 문학적 창작물이기에 역사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원전 10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성서가 기술하는 다윗과 솔로몬의 소위 '통일 왕국' 규모의 중앙집권국가가 존재했다는 고고학적 사료적 물증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근거로, 최소주의자들은 기원전 10세기 고고학적 층위에서 발견되는 도시화 수준의 낮음, 철기 IIA 초기 물질문화의 미약함,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대규모 행정, 건축 유적의 부재, 그리고 남부 레반트의 북부, 중부, 남부 지역에서의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의 물질문화' 흔적의 부재들을 그 근거들로 제시했다. 즉, 당시 예루살렘은 '도시'라기보다

---

1 William F. Albright, "The Gezer Calendar," *BA* 6 (1943), 135-142; John Bright, *A History of Israel*, 3rd e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0), 190-200; G. Ernest Wright, *Biblical Archaeolog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2), 17-18. 오늘날 학계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기간의 정확한 길이와 시작·종결 연대는 확정할 수 없지만, 그들의 통치가 기원전 10세기에 속한다는 점 — 다윗의 통치는 아마도 기원전 11세기 말에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 에는 이견이 없다.

2 Thomas L. Thompson, *The Mythic Past: Biblical Archaeology and the Myth of Israel* (London: Basic Books, 1999), 164; Niels P. Lemche, *Ancient Israel: A New History of Israelite Society* (Sheffield: JSOT Press, 1988), 45-67; idem, "Ideology and the History of Ancient Israel", *SJOT* 14 (2000), 165-193; Philip R. Davies, *In Search of Ancient Israel* (Sheffield: JSOT Press, 1992), 60-62, 120-122; Israel Finkelstein and Neil A. Silberman, *The Bible Unearthed: Archaeology's New Vision of Ancient Israel and the Origin of Its Sacred Texts* (New York: Free Press, 2001), 23-38, 128-134.

www.kci.go.kr

'작은 산지 마을' 수준이었으며,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은 실제로 존재했더라도 매우 제한된 지방 권력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대주의자들, 혹은 중도주의자들은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의 역사 사료성에 대한 역사 비평적 옹호적 논증을 제시한다.[3] 또한 최대주의적, 혹은 중도주의적 입장을 지니는 고고학자들은 같은 고고학적 자료에 대해서도 최소주의자들과 달리 해석하여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과 관련된 물질문명이 있었다고 주장한다.[4] 이들은 헐몬산(Mountain of Hermon) 남쪽 자락에서부터 북부 네게브(Northern Negev)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발견되는 기원전 10세기에 일어난 도시화, 요새화 과정, 예루살렘에서의 행정, 건축 유적의 재해석, 이 지역 도시들에서 등장하는,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의 물질문화로 대변되는 '4방 구조의 가옥(Four-Room House),' '신전 없는 성읍'들의 분포를 주장한다.

양 진영의 대립은 곧 '국가'의 존재를 식별하는 유물 혹은 유적 지표 — 일정 수준의 도시화, 인구 규모, 위계적 정착 체계, 핵심 수도·거점 성읍들, 거대한 석조 건축 — 의 타당성에 대한 방법론 논쟁으로 수

---

3 E.g., Baruch Halpern, *David's Secret Demons: Messiah, Murderer, Traitor, King* (Grand Rapids: Eerdmans, 2001), 15-40, 200-220; Isaac Kalimi, *Writing and Rewriting the Story of Solomon in Ancient Israe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100-120, 210-230; Matthieu Richelle, *The Bible and Archaeology* (London: Bloomsbury T&T Clark, 2016), 90-110; Willliam Schniedewind, *The Finger of the Scribe: How Israel's Script Created the Bibl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45-70; 유윤종 "고대 이스라엘 역사 찾기와 고고학: 수정주의자와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4 (2004), 105-127; 강후구, "고대 이스라엘 역사와 역사서술: 최근 통일 왕국 시대 고고학 발굴 결과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93 (2024), 9-51.

4 E.g., Amihai Mazar, "Archaeology and the Biblical Narrative: The Case of the United Monarchy," in *Israelite Identity in Transition: The Archaeology of Western Samaria*, ed. T. E. Levy et al. (Atlanta: SBL Press, 2010), 265-280; idem, *Biblical Archaeology: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40-60; Avraham Faust, "The 'United Monarchy' on the Ground: The Disruptive Character of the Iron Age I-II Transition and the Nature of Political Transformations", *JJA* 1 (2021), 15-67; William G. Dever, *Beyond the Texts: An Archaeological Portrait of Ancient Israel and Judah* (Atlanta: SBL Press, 2017), 120-150.

www.kci.go.kr

렴한다. 본 논문은 이 표준 지표들이 과연 기원전 10세기 이스라엘의 정치체 현실을 충분·필수 조건으로 포착하는 지를 재검토한다. 특히 최근 에레쯔 벤 요세프(Erez Ben-Yosef)와 자카리 토마스(Zachary Thomas)에 의해 제기된 기존 성서 시대 역사, 레반트 고고학계의 '정착 중심주의'와 '건축 중심 편향'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다윗과 솔로몬의 권력이 정착민만이 아니라 반유목-반정착의 성향을 보이는 친족-씨족, 부족, 지파 집단을 포괄한 다중 중심적(Polymorphic) 정치체에 근거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5] 따라서 이 글은 기존 학계에서 논의했던 역사, 고고학적인 자료로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 그들의 정치체를 평가했던 학계의 논의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다. 본 논문은 (1)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을 먼저 기존 역사학계의 '지파 연맹체-군장국-영토국가-제국'과 같은 단선론적, 진화론적 정치제 발전 모델에서 등장한 '영토국가'와 '제국'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검토하고, (2)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에 적힌 사료들로 평가되는 다윗과 솔로몬의 고위 관리 목록과 회중(장로) 체제를 역사 비평적 관점에서 재독해하여, (3)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에 대해'영토국가' 혹은 '제국'이라는 개념을 넘어 반유목-반정착의 성향을 보이는 친족-씨족, 부족, 지파 연맹성과 초기 관료제가 공존하는 다중 중심적 복합 왕국으로 이해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5 Erez Ben-Yosef, "The Architectural Bias in Current Biblical Archaeology", *VT* 69 (2019), 361-387; idem, "Rethinking the Social Complexity of Early Iron Age Nomads", *JJA* 1 (2021), 155-179; Zachary Thomas, "On the Archaeology of 10th Century BCE Israel and the Idea of the 'State'", *PEQ* 153 (2021), 244-257.

www.kci.go.kr

2.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에 대한 이해

1) 군장국인가, 영토국가인가, 제국인가, 아니면 친족-씨족, 부족, 지파, 군장국의 성향을 공유한 다중 중심적 복합 왕국인가?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학자들은 분석 가능한 정치체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이들이 점진적, 단선적으로 발전했다고 전제하는 경향을 보인다.[6]: 친족-씨족, 부족으로 구성된 유목 성향의 지파 연맹(Tribal Confederation), 반유목, 반정착의 군장국(Chiefdom), 반도시화, 정착 중심의 영토국가(State), 도시화, 중앙집권적 제국(Empire).

(1) 지파 연맹 사회

지파 연맹은 친족-씨족이 연합해 상위 단위의 부족, 그 상위 단위의 지파를 이루는 체제로, 정착이 촉진되면서도 유목과 농업이 같은 집단 내부에서 공존한다. 구성원 간 기능, 역할의 분화는 있으나 사회경제적 계층 구조는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다만 지파별로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출현해 주변과의 군사 갈등을 중재하며, 지파들은 개별 혹은 연합으로 공동 문제를 해결한다. 이 연합은 의리와 도의에 기반한 친족-씨족들의 느슨한 동맹에 기반한다.

---

6 사회조직의 복잡성 단계별 분류를 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다음 글을 참고하라. Colin Renfrew and Paul Bahn, *Archaeology: Theories, Methods, and Practice*, 7th ed. (London: Thames & Hudson, 2022), 186-191. 해당 연구 내용과 비슷하게 고대 이스라엘 정치 체제 사례를 설명한 연구들은 다음을 참고하라. Norman K. Gottwald, *The Tribes of Yahweh: A Sociology of the Religion of Liberated Israel, 1250-1050 BCE* (Maryknoll, NY: Orbis Books, 1979), 341-408; James W. Flanagen, "Chiefs in Israel", *JSOT* 6 (1981), 47-73; Frank S. Frick, *The Formation of the State in Ancient Israel: A Survey of Models and Theories* (SWBA 4; Sheffield: Almond, 1985); Volkmar Fritz and Philip R. Davies (eds), *The Origins of the Ancient Israelite States* (JSOTSup 228;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Mario Liverani, *Israel's History and the History of Israel* (London: Equinox, 2005), 109-125, 222-254; Avraham Faust, *Israel's Ethnogenesis: Settlement, Interaction, Expansion and Resistance* (London: Equinox, 2006), 66-83, 133-158.

www.kci.go.kr

(2) 군장국

군장국은 지파 연맹의 분쟁 해결을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등장한 체제로, 혈통에 근거한 지속적 지도력이 군장에게 부여된다. 군장은 유대가 강한 친족 집단과 권력을 공유하지만, 전문 관료 기구를 갖춰 정규 행정을 운영하지는 못한다. 그의 권위는 지역 장로들과의 교섭을 통해 행정, 경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되, 사회 규범에 제약받는 등 제한적이다.

(3) 초부족적(Super-tribal) 정치체로서의 영토국가

영토국가는 잉여생산 증가, 교역 확대, 도시화 등 사회, 경제 발전에 따라 계급 구조가 형성되고 사회 규모와 복잡성이 커진 체제다. 이에 상응하는 관료제와 행정 기구가 요구되며, 통치자는 군대, 치안 등 공권력을 통해 조세 부과, 노동 동원, 전쟁 명령을 강제할 수 있다.

(4) 초국가(Super-state) 체제로서 제국

제국은 영토국가보다 한 단계 진전된 초(超)국가적 체제로, 장기간 지속성과 제도적 정착을 특징으로 하며 웅대한 물질 유산이라는 명확한 고고학적 흔적을 남긴다. 이 정치체는 체계적으로 발달된 수도와 더 분업화된 관료제, 행정 체계 아래 직접 주민들을 통치하며 광대한 영역을 통제, 지배한다. 이때 고도로 발달한 정치, 사회, 경제적 기반을 갖춘 강력한 영토국가가 주변을 정복, 흡수하며 제국이 된다는, 이른바 '발전론적 제국' 모델이 가정된다.

위의 정치체 분류에 따르면,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에 대한 최대주의적 연구는 두 왕이 확립한 정치 체제를 영토가 확장된 영토국가 왕국 또는 제국으로 규정해왔고, 반면 최소주의적 연구는 군장국, 혹은 지파

www.kci.go.kr

연맹체보다 좀 더 발달한 과도기적 초기 국가라고 규정해왔다.[7] 물론 이러한 단계적 정의에 따라 정치체의 특징을 구분하고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연구자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을 이러한 특정 국가 발전 모델의 틀만을 고려하여 해석하면서, 일정 수준의 도시화, 대규모 인구, 위계적 정착 구조, 수도와 핵심 성읍의 존재, 거대한 석조 건축물 등 가시적 고고학 자료의 유무를 기준으로 그 정치체의 실재 유무를 평가해왔다는 점이다.[8] 이에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과연 군장국, 영토국가나 제국은 이러한 유형의 물질 자료만 존재할 때만 실재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또 다윗과 솔로몬 정치체 안에서 지파 연맹적 혹은 군장국적 요소, 영토국가적인 요소들이 동시대적 특징으로 섞여서 존재했을 가능성은 없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들의 왕국을 눈에 보이는 유물 중심으로만 설명하려는 접근 자체가 문제이다. 왜냐하면 지파 연맹적, 군장국적 특징은 본질적으로 씨족, 친족, 지파 관계, 반유목-반정착 생활, 혈연 중심의 정치 구조에 기반하기 때문에, 영토국가가 보통 제시하는 석조 유물들을 가지고 있기 만무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존재했던 기원전 10세기가 바로 지파 연맹과 군장국적 질서에서 보다 발달한 정치, 행정 체계로 이행하던 과도기적 시기였다는 사실이다.[9] 해당 정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사료'로 남아 있는 성서의 기록을 역사비평적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당시 역사적 정황을 재구성할 필요

7 Fritz and Davies (eds), *The Origins of the Ancient Israelite States*.

8 Erez Ben-Yosef and Zachary Thomas, "Complexity Without Monumentality in Biblical Times", *JAR* 32 (2024), 59-101.

9 Avraham Faust and Zev I. Farbe, *The Bible First Kings: Uncovering the Story of Saul, David, and Solom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5), 277-278.

www.kci.go.kr

가 있다. 성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사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 이후 벌어진 이스라엘-유다 간 내전(삼상 2-4장)의 결과로 형성되었으며, 두 왕의 죽음 전후로 반복적인 분열과 혼란(삼하 16-19장; 왕상 12장)을 겪었다고 전한다. 따라서 소위 '통일 왕국'이라 불리는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을 단순히 유물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영토국가나 제국으로 이해하는 접근은 재고되어야 한다.

20여 년 전, 로렌스 스테거(Lawrence Stager)와 다니엘 매스터(Daniel Master)는 이미 국가 형성(State Formation) 이론을 바탕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을 막스 베버(Max Weber)가 말한 가부장적 왕국(Patrimonial Kingdom)으로 해석했다.[10] 그들은 성서 기록과 인류학적 자료를 근거로, 이 왕국이 '지파 연맹체-군장국-영토국가-제국'으로 이어지는 단선적 진화 모델보다, 여러 형태가 혼합된 복합적 국가 구조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즉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은 친족 중심의 부족 사회에서 영토 주권과 관료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나,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친족 유대(Kinship Ties) 체제를 근거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족 조직, 특히 유목적 성향을 지닌 집단들이 국가 운영의 핵심을 이루는 현상은 고대 근동과 서아시아, 중동 전역에서 장기적으로 나타났던 특징이며,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사례들. 즉 도시 국가 우루크(Uruk), 니푸르(Nippur)와 우마(Umma)의 네트워크, 우르III(UR III) 왕조에서도 반복적으로 관찰된다.[11]

---

10 Max Weber,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231-236; Lawrence E. Stager, "The Patrimonial Kingdom of Solomon", in *Symbiosis, Symbolism, and the Power of the Past: Canaan, Ancient Israel, and Their Neighbors from the Late Bronze Age through Roman Palaestina,* eds. William G. Dever and Seymour Gitin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3), 63-74; Daniel M. Master, "State Formation Theory and the Kingdom of Ancient Israel", *JNES* 60 (2001), 117-131.

11 Anne Porter, *Mobile Pastoralism and the Formation of Near Eastern Civilizations: Weaving Together Socie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1-24, 42-75, 120-149.

www.kci.go.kr

흥미롭게도 성서의 기록은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지파, 부족, 장로 체제와 혈연 관계에 기초한 사회 구조에 근거함을 암시한다. 우선 이스라엘의 혈연 기반 사회 구조는 여호수아 7장 14-18절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12] 본문에 따르면 지파(히브리어 *šēḇeṭ*, "막대기, 홀")는 이스라엘 곧 야곱의 아들인 조상들의 이름을 따르며, 지파는 여러 씨족(*mišpāḥôt*)으로, 씨족은 가부장적 가구(*bāttîm*)로, 그리고 각 가구는 "아버지의 집"(*bêt ʾāḇ*)으로 세분된다. 일부 히브리 성서에서는 지파 자체가 '집'(*bêt*)으로 지칭되며, 왕조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가부장적 모델에 따라 통치 가문의 이름이 전체 친족-씨족, 부족, 지파를 대표하는 명칭이 되는 전통은 성서뿐 아니라 고대 근동 전역에서도 관찰된다.[13]

이와 관련해 텔 단 석비(Tel Dan Stele)와 성서가 언급하는 다윗의 정치 체제는 명확히 친족-씨족, 부족, 지파 연맹적 성격을 드러낸다. 텔 단 석비의 아람어 비문에 새겨진 "다윗의 집(히브리어 *bêt dawîd*)"이라는 여섯 자음은 문자 그대로 '다윗의 집'을 뜻하면서도 동시에 관례적으로 '다윗 왕조/왕실'을 가리키기에 유다 왕국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유다라는 국가 표지가 외부 담론에서도 지리나 민족의 이름으로 규정된 국가명이기보다 "창건자와 가문"을 합쳐 명시한 왕실 가문(royal house)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사실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유다 왕권의 정통성과 그 연속성이 왕실로서 가문 중심으로 표상되는 정치체 구조를 반영함을 시사한다.[14]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씨족,

---

12 F. I. Andersen, "Israelite Kinship Terminology and Social Structure", *The Bible Translator* 20 (1969), 29-39; Lawrence E. Stager, "The Archaeology of the Family in Ancient Israel", *BASOR* 260 (1985), 1-36, 특히 10-22를 보라.

13 Avraham Faust, *The Archaeology of Israelite Society in Iron Age II* (Winona Lake: Eisenbrauns, 2012), 121-126.

14 텔 단 석비에 대한 한글 논문으로는 김영진, "단 석비와 이스라엘 역사", 「구약논단」 13

www.kci.go.kr

혹은 친족을 의미하는 가문과 그 상위 단위들인 부족과 지파는 일반적으로 "장로들"(*zᵉqēnîm*)이라 불린 혈연 단위 남성 가장들의 회의체에 의해 관리, 운영되었다. 해당 장로 집단은 왕국의 형성과 통합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15] 실제로 다윗은 자신과 혈연적,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다 지파 장로들의 지지를 얻은 후 왕으로 추대되었다(삼상 30장; 삼하 2장). 이어 사울과 이스보셋의 죽음 이후에는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을 매개로 북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승인을 통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승인되었다(삼하 5장).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두 지파 베냐민과 유다 땅에 속하며, 두 지파의 경계에 위치한 예루살렘(참고 수 15, 19장)으로 천도하여, 베냐민에 기반한 사울과 가까운 친족-지파 세력과 유다에 기반한 자신과 가까운 친족-지파 세력을 아우른다. 이는 다윗 왕국이 입법적 기능을 지닌 소위 '회중(Communal Assembly)'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지파 연맹과 군장국 체제가 중시하는 장로들과의 '언약(Covenant)' 체결 구조 속에서 확립되었음을 보여준다.[16]

솔로몬의 치세에 들어서면서 중앙집권화의 조짐이 나타나지만, 그는 여전히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예루살렘 성전(히브리어 *bêt YHWH*, "야훼의 집")을 건축한 후, 솔로몬은 부친 다윗의 전례를 따라 지파 장로들 앞에서 제사와 잔치를 열며 그들과의 동맹을 재확인했다(왕상 8장). 이는 솔로몬의 왕권이 자신이 임명

(2002), 107-127를 참고하라. 해당 논의에 대한 논문으로는 Kyle H. Keimer, "Evaluating the 'United Monarchy' of Israel: Unity and Identity in Text and Archaeology", *JJA* 1 (2021), 68-101, 특히 77-80를 보라.

15 Hanoch Reviv, *The Elders in Ancient Israel: A Study of a Biblical Institution* (Jerusalem: Magnes Press, 1992), 14-32, 54-70.

16 Sigmund Wagner-Tsukamoto, "State Formation in the Hebrew Bible: An Institutional Economic Perspective", *JSOT* 37 (2013), 391-422, 특히 409-411를 보라.

www.kci.go.kr

한 관료보다 오히려 지파별 장로들의 의사에 크게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17] 회중과의 '언약'은 준의회적 사회 계약으로 기능했으며, 솔로몬 사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르호보암은 이 언약의 성격을 오해하고 백성을 자신의 종처럼 대하며 가혹한 조세와 부역을 부과하였다. 그는 영토국가나 제국에서나 가능한 강제적 조공 체제를 시도했으나, 이에 반발한 이스라엘 장로들에 의해 거부당하고 왕국은 분열되었다. 장로들이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왕상 12:16)라고 선언한 것은, 그들이 여전히 장막 거주를 기반으로 한 친족-씨족, 부족, 지파 연맹체 공동체 구조를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유지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18]

2) 다윗과 솔로몬의 고위관리 목록: 전환기적 반유목적 다중 중심왕권체의 행정조직

다윗·솔로몬 왕국이 여전히 친족-씨족, 부족, 지파 연맹체 중심 구조에 의존한 사실을 고고학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면, 어떤 자료를 검토해야 할까? 고대 이스라엘의 정치체 출현을 문헌에만 의존해 논의할 수 있다면, 임마누엘 포우(Immanuel Pfoh)가 주장하듯이, 그 문헌이 후대 종교적, 신학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편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료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역사 재구성에서 배제해야 할까?[19] 반면, 다른 고고학자들은 당시 정치제와 사회의 작동 방식과 사회, 문화적 배경을 이

17 Wagner-Tsukamoto, "State Formation in the Hebrew Bible", 417.

18 Wagner-Tsukamoto, "State Formation in the Hebrew Bible," 418.

19 Emanuel O. Pfoh, "Dealing with Tribes and States in Ancient Palestine", *SJOT* 22 (2008), 86-113, 특히 87, 94-95를 보라.

www.kci.go.kr

해하기 위해 문헌 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20] 다만 해당 문헌 자료가 특정 신학, 사상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담담한 필체로 가치 중립적인 사건을 사실적으로 서술하는지 여부를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 이 관점에서 다윗과 솔로몬 관련 기록 가운데 고위 관리 목록은 비교적 담담한 문체와 가치 중립적 성격을 띤 자료로서 사료 비평의 대상이 된다. 아래에서는 이 목록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두 왕국의 행정 체제가 친족-씨족, 부족, 지파 연맹체 구조에 어떻게 근거했는지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특히 그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처음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된 사울 시대의 고위 관리 목록과 비교 대조하여 변화 양상을 추적한다. 초기 이스라엘 왕국 — 곧 사사 시대 지파 연맹체의 연장선 — 을 반영하는 군장국으로서 사울의 고위 관리 목록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사울의 아들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맏이는 메랍이요 작은 딸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마아스의 딸 아히노암이요, 그의 군대 장관의 이름은 넬의 아들 아브넬이니 넬은 사울의 숙부요,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네르의 아버지 넬은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삼상 14:49-51).[21]

---

20 Bruce G. Trigger, *A History of Archaeological Thought*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96-97; Alexander H. Joffe, "Defining the State", in *Enemies and Friends of the State,* ed. Christopher Rollston (University Park: Eisenbrauns, 2018), 3-23, 특히 9를 보라.

21 맥카터(McCarter), 클라인(Klein), 그리고 츠무라(Tsumura)는 사무엘상 14:49-51을 사울 치세에 관한 고대의 기억을 보존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왕실 가족 및 궁정 명단으로 평가한다. P. Kyle. McCarter Jr., *I Samuel* (AB 8; Garden City, NY: Doubleday, 1980), 247-248; Ralph W. Klein, *1 Samuel* (WBC 10; Waco, TX: Word Books, 1983), 137-138; David T. Tsumura, *The First Book of Samuel* (NICOT; Grand Rapids: Eerdmans, 2007), 385-386. 캠프벨(Campbell)과 디트리히(Dietrich)도 앞에서 언급한 학자들과 유사하게 사울의 고위 관리 명단 목록 문체가 비교적 중립적이고 비신명기계(비-Deuteronomistic)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해당 명단 목록을 본래 독립적인 행정적 공지(administrative notice)로서 형성된 자료로 본다. Antony F. Campbell, 1 Samuel,

www.kci.go.kr

사울의 고위 관리 목록은 사실상 그의 가족 중심, 혹은 친족 측근 명단에 가깝다. 행정직이라기보다 혈연 집단 내에서의 권력 분배를 보여주는 구성으로, "전문직"이라 부를 만한 직책조차 사촌 형제인 아브넬이 군대 장관을 맡고 있다. 즉 사울의 통치 구조는 본질적으로 확대 가족 중심의 혈연 체제였으며, 행정 권한이 친족 집단 내부에 집중된 형태였다.[22]

반면 다윗과 솔로몬의 고위 관리 체계는 이와 뚜렷이 구별된다. 다윗의 경우, 고위 관리 목록에는 군대장관, 감독관, 사관, 제사장, 서기관, 제사장, 대신 등 다양한 직책이 등장한다.

>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둡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다윗의 자녀들도 제사장이 되니라." (삼하 8:16-18).

>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삼하 20:23-25)

다윗의 고위 관리 목록은 비록 외형상 관료제의 단순하고 초기적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지만, 실제 내용 면에서는 사울 시대보다

FOTL 7 (Grand Rapids: Eerdmans, 2003), 158-159; Walter Dietrich, *1 Samuel 13-26,* BKAT VIII/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11), 46-47.

22 Shaul Bar, "Saul: The State Builder", *OTE* 36 (2023), 605-624, 특히 610-618를 보라.

www.kci.go.kr

훨씬 발전되고 체계화된 형태였다. 다윗의 행정 체계는 군사 조직, 기록 관리, 제사 제도, 피정복민 통치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기능적으로 구분된 직위들을 포함한다.[23] 다윗의 고위 관리 목록을 사울의 그 것과 비교해 보면, 직책의 수가 훨씬 많고, 각 직위의 역할과 기능이 분명히 더 세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명단에는 다윗과 혈연 관계를 지닌 인물도 존재하지만, 혈연과 무관한 인사들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군대장관은 다윗의 조카 요압이었으나, 그 외의 다수는 비(非)혈연 인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사장 가운데서도 다윗의 자녀가 일부 포함되었을 뿐이다. 이는 혈연 기반 인사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기능과 역할에 따른 직분의 분화와 행정 전문화가 진행되었음을 증명한다.[24]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 고위 관리 목록은 이후에 등장하는 다윗의 용사 목록(삼하 23:8-39)에 비하면 훨씬 간결하다. 용사 목록은 세 명의 핵심 지휘관과, 그보다 용맹은 다소 떨어지나 군사적 명성을 얻은 또 다른 세 명, 그리고 약 30명의 용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체적 기록은 다윗의 통치가 행정 관료 중심의 국가 관리 및 운영보다 군사적 역량과 전투적 리더십에 초점을 두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즉, 다윗의 체제는 개인적 충성, 전우애, 전쟁 수행 능력을 기반으로 한, '영웅' 중심의 소규모 군사 공동체의 성격을 유지했으며, 후기의 복잡하게 발달한 관료제 국가와는 거리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사울보다 체계적이고 기능적으로 발전된 구조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행정 조직은 여전히 단순하고 상대적으로 얇은 계층 구조를 지닌 초기 왕국의 행정 체제를 반영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3 Wagner-Tsukamoto, "State Formation in the Hebrew Bible", 409.

24 Nadav Na'aman, "The List of David's Officers (šālîšîm)", *VT* 38 (1988), 71-79.

www.kci.go.kr

다윗 이후에 즉위한 솔로몬의 고위 관리 목록은 다음과 같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고관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랴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대 장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랴는 대신들의 감독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요 왕의 친구요, 아히살은 궁내대신이요, 아브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부역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열두 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일 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왕상 4:1-7)

솔로몬의 고위 관리 목록에는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대장관, 제사장, 대신들의 감독, 궁내대신, 부역감독관 등이 포함된다. 다윗 시대와 비교하면 '왕의 친구', '궁내대신', '부역감독관' 등 두세 개 새로운 직위가 추가되었으나, 전체 구조는 여전히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직위의 수가 다소 늘었을 뿐, 행정 체계의 기본 틀은 다윗 시대의 그것을 계승한 형태였다.

다만 주목할 점은, 솔로몬의 행정 체제에는 다윗 시대의 '용사 목록'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대신, 열 두 명의 관장과 그들이 담당한 열 두 행정 구역이 새롭게 등장한다. 이는 군사적 영웅 중심 체제에서 행정적, 조세적 조직화로의 부분적 전환을 보여주는 변화로, 왕권이 전쟁 수행보다는 통치와 행정 관리에 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 벤훌(Ben-Hur) – 에브라임 산지.
- 벤데겔(Ben-Deker) – 마가스, 샬빔, 벧세메스, 엘론 벧하난.
- 벤헤세드(Ben-Hesed) – 아룹봇(소고와 헤벨 온 땅이 그의 관할).
- 벤아비나답(Ben-Abinadab) – 나봇 돌(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Taphath)과

www.kci.go.kr

결혼함).

- 바아나(Baana) 아힐룻의 아들 – 다아낙과 므깃도, 이즈르엘 아래 사르단 곁의 벧산 전 지역, 벧산에서 아벨-므홀라까지, 요그므암에 이르기까지.
- 벤게벨(Ben-Geber) – 라못 길르앗(길르앗의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촌락들이 그의 관할이며, 또 바산의 아르곱 지방과 놋(청동) 빗장이 달린 크고 성벽이 있는 예순 성읍도 관할).
- 아히나답(Ahinadab) 잇도의 아들 – 마하나임.
- 아히마아스(Ahimaaz) – 납달리(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Basemath)과 결혼함).
- 바아나(Baana) 후새의 아들 – 아셀과 알롯.
- 여호사밧(Jeho shaphat) 바루아의 아들 – 잇사갈.
- 시므이(Shimei) 엘라의 아들 – 베냐민.
- 게벨(Geber) 우리의 아들 – 길르앗(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땅). (왕상 4:7-19)

열두 행정 구역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열두 지파 구역 가운데 에브라임, 길르앗, 납달리, 아셀, 잇사갈, 베냐민의 흔적을 보존하고 있으며, 나머지 여섯 개는 새롭게 구획된 지역으로 보인다. 라이트같은 학자는 이러한 구획이 과거 지파 체제 아래 존재하던 지파 내부의 정치적 권위를 약화하거나 해체하기 위한 의도적 조치였다고 해석한다.[25] 다시 말해, 이는 지파 단위를 완전히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구조와 새로운 왕국의 행정 체계 사이의 과도기적 흔적으로 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왕국 안에는 여전히 지파 구역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다. 알브레히트 알트(Albrecht Alt)와 요하난 아하로니(Yohanan Aharoni)는 열두 구역 체계가 급진적 개편의 결

25 G. Ernest Wright, "The Provinces of Solomon", *Eretz Israel* 8 (1967), 58-68.

www.kci.go.kr

과가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파 구획을 존중하면서 행정적 필요에 따라 조정된 체계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6]

또한, 솔로몬이 임명한 열두 명의 관장은 왕실의 양식과 조세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성서 본문은 이 체계가 완전한 중앙집권적 행정 조직의 확립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언급하지 않는다. 각 관장은 1년에 한 달씩 교대로 왕실에 양식을 바치는 순환적 조공 제도를 담당했지만, 이것이 지파 제도를 넘어선 조세 체계의 확립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오히려 열두 관장은 각 지역의 친족-씨족, 부족에 기반한 유력한 가문 출신 지도자들로 보이며, 솔로몬은 이들과의 정치적 동맹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27] 이를 뒷받침하듯, 그는 열두 관장 가운데 두 명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보내 결혼 동맹을 맺었다. 이러한 관행은 봉건적 혼인 외교를 통해 왕권과 지역 토호(土豪) 세력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솔로몬의 행정 구역 중 마하나임과 라못 길르앗은 장막 거주 기반의 친족-씨족, 부족 집단들을 관리하기 위한 구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28] '마하나임'(히브리어로 "두 진영" 혹은 "장막들") 자체가 유목민의 이동 거주지를 뜻하며, 실제로 이 지역은 요르단 계곡과 트랜스 요르단

---

26 Albrecht Alt, "Die Landnahme der Israeliten in Palästina", *Beiträge zur Wissenschaft vom Alten und Neuen Testament* 12 (1913), 1-62, 특히 39-44를 보라; Yohanan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A Historical Geography* (revised edition; Philadelphia: Westminster, 1979), 323-330.

27 Yitzhak Lee-Sak, "The Solomonic Districts and the Nimshide Dynasty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Southern Levant", *Religions* 14 (2023), Art. No. 598. 이러한 씨족, 부족, 지파의 지도자들과의 왕들과의 연대는 이후 예후 왕조 시대에도 계속 유지되어 나타난다. 해당 고고학적인 근거는 예후 왕조와 므낫세 씨족과 포도주, 올리브유 조공 헌정 관계를 알려주는 사마리아 오스트라카(Samaria Ostraca)이다.

28 Zachary Thomas and Erez Ben-Yosef, "David and Solomon's Invisible Kingdom", *BAR* 49 (2023), 40-45, 특히 42-43를 보라.

www.kci.go.kr

고원 사이의 이동 방목 경로였다.[29] 따라서 여기에 행정 관리 한 명을 배치한 것은, 왕이 이 지역의 유목민들과의 소통과 징발 체계를 통제,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부 트랜스요르단 지역의 한 관장은 므낫세의 후손 야일의 하봇을 관할했다. 여기서 복수형 *ḥāvōt*은 여호수아 13장 30절에서 '성읍'(*ʿîr*)과 병렬되지만 도시화된 지역이 아닌, 유목민들의 주거 형태인 진영이나 울타리로 된 방책을 의미한다.[30]

이상의 고찰을 종합하면, 다윗과 솔로몬의 고위 관리 목록은 전통적으로 가정된 영토국가나 제국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는 행정 체계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자료들은 두 왕의 왕국이 반유목-반정착 성향을 보이는 친족-씨족, 부족, 지파 연맹체적 사회적 구조와 군장국적 요소를 결합한, 보다 발전한 다중 중심적 정치체였음을 증명한다. 즉, 이들의 왕국은 중앙집권적 영토국가나 제국보다는 반유목 사회를 기반으로 친족-씨족, 부족, 지파 연맹체 사회와 군장국의 구조를 혼합한 전환기적 국가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일시적으로 영토를 확장/유지했던 반유목적 다중중심 왕권체

그렇다면 기원전 10세기, 곧 이른 철기 IIA기에 활동했던 다윗과 솔로몬이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다"고 전하는 성서의 진술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구절들을 근거로,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을 영토국가 혹은 제국으로 평가해왔다. 이들은 성서의 서술을 입증하기 위해 고고학적 자료를 활용하며, 특정 유적의 규모나 도시화 수준을 통해 그들의 통치 범위를 설명하려 했다. 따라서 성서 본문이 과연

29 Jeremy M. Hutton, "Mahanaim, Penuel, and Transhumance Routes: Observations on Genesis 32-33 and Judges 8", *JNES* 65 (2006), 161-178.

30 Anson F. Rainey, "Notes on Some Proto-Sinaitic Inscriptions", *IEJ* 25 (1975), 106-116.

www.kci.go.kr

그러한 고고학적 지표와 직접적으로 대응 가능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만약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반유목-반정착적 요소를 보이는 친족-씨족, 부족, 지파 연맹체 사회와 군장국적 성격을 공유한 복합 정치체로 이해될 수 있다면, 그들의 정치체를 단순히 소규모 지역 권력으로 축소하여 평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비록 중앙집권적 관료 국가나 제국적 행정 체계를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일정한 정치적 연합과 동맹 구조를 통해 영토 확장과 영향력 확대를 실현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했을 것이다.

다윗과 솔로몬은 사울의 정치 체제처럼 단순히 군장국 수준의 권위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다. 여러 성서 본문들은 두 왕이 군사적 원정과 외교적 확장을 시도했으며, 비록 그 통치 기간이 길거나 안정적이지는 않았을지라도, 일정 시기 동안 넓은 지역을 직접 실효 지배하거나 주변 나라들을 굴복시켜 봉신으로 만들어 그 정치적 영향력 아래 두었다고 기록한다.

>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굴복시키고… 모압을 쳐서 굴복시켜 조공을 바치게 하니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을 쳐서… 다윗이 아람 사람에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삼하 8:1-14; 대상 18:1-13)

> "솔로몬이 그 강(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와 애굽의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므로…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리므로…"(왕상 4:21, 24; 대하 9:26)

>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

www.kci.go.kr

라"(왕상 4:25)

그렇다면 이러한 성서의 구절들을 '역사적 사료'로 간주할 때, 앞서 제시한 '영토국가' 혹은 '제국'의 전형적 특징들만을 근거로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을 평가할 수 있을까? 고대 이스라엘 왕정의 초기 단계로 알려진 이 시기의 본문들이 언급하는 성읍들이, 실제로는 정착민과 장막 거주민이 공존하던 반유목-반정착적 공동체의 거점이었다면, 과연 그러한 사회에서 영토 확장이 불가능했을까? 표면적으로는 분열적이고 자율성이 강한 유목민 집단이 중앙집권적 권력을 형성하거나, 넓은 지역을 통합해 지배하는 강력한 왕국을 세우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살펴볼 때 유목민이 영토 확장을 이루어 낸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비록 드물지만, 역사 속에는 개별적이고 분산된 유목 집단의 에너지를 한 지도자가 통합하여, 그들의 기동력과 전투력을 국가 형성의 동력으로 전환한 사례들이 여럿 존재한다. 이들은 유목적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일정 시기에 주변 정착 사회를 지배하거나 그 위에 군림하는 '유목 영토국가,' 심지어 '유목 제국'의 형태로 발전하기도 했다.[31]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유목적 연합 왕국이나 제국들이 고고학적으로는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이들의 정치체가 정착 중심의 기념비적 건축이나 도시 구조물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질 문화의 부재를 근거로 그들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은, 반유목적 사회가 지닌 정치적 역동성을 간과하는 셈이 된다. 결국,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 역시, 제국적 모델의 물질적 지표보다는 유

31 Faust and Farbe, *The Bible First Kings,* 277-279, 284-289.

www.kci.go.kr

목적 사회의 연합 구조와 지도자의 통합력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한다.[32] 그렇다면 이러한 유형 — 반유목-반정착 성향을 보이는 친족-씨족, 부족, 지파 연맹체 기반을 지니면서도 정치적 통합과 영토 확장을 이룩한 — 에 부합하는 역사적 정치체들은 어떤 사례들일까?

먼저,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마리 왕국(Kingdom of Mari)은 중기 청동기의 대표적 복합 사회를 반영한 국가로, 정착민과 유목민이 한 지파 내에서 공존하며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했다. 발굴된 문헌 자료에 따르면, 마리 왕국은 부족 정체성을 유지한 채 정주 집단과 이동 집단이 공존하였고, 특히 이동 집단이 국가 운영과 행정, 외교, 군사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마리는 특정한 절대 군주가 지배하는 중앙집권국가라기보다, 유목-정주 혼합 사회의 협력적 정치 구조 속에서 영토를 확장한 복합 체제였다.[33]

비슷하게, 나바테아 왕국(Nabatean Kingdom) 역시 유목적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도시 기반의 교역 네트워크를 형성한 사례이다. 본래 유목민이었던 나바테아인들은 페트라(Petra)를 중심으로 지중해, 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육로 무역을 장악하여 부를 축적하여 세력을 키웠다. 기원전 2~1세기에 이르러 그들은 옛 에돔 지역과 모압, 길르앗, 트랜스 요르단 북부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장하고, 셀레우코스 제국(Seleucid Empire), 그리고 하스모니아 왕조(Hasmonean Dynasty)과도 대립과 동맹을 반복했다. 특히 셀레우코스 세력이 약화되자 시내 반도와 시리아의 다마스쿠스까지 진출하며 최대 판도를 달성했다.[34]

---

32 Ben-Yosef, "The Architectural Bias"; idem, "Rethinking the Social Complexity; Thomas, "On the Archaeology of 10th Century BCE Israel"; Thomas and Ben-Yosef, "David and Solomon's Invisible Kingdom."

33 Daniel E. Fleming, *Democracy's Ancient Ancestors: Mari and Early Collective Govern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93-124, 130-140.

34 Dan Gibson, *The Nabataeans: Builders of Petra* (Ontario: Black, 2007), 44-65, 130-137.

www.kci.go.kr

티무르 제국(Timurid Empire)은 유목 집단의 통합과 영토 확장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투르크계 유목민 바를라스 부족 출신인 티무르(Timur)는 14세기 후반 여러 유목 부족을 통합하고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제국을 세웠다. 그의 통치는 몽골-투르크 유목 전통과 페르시아 농경 문화의 융합이라는 다문화적 성격을 띠었다. 그는 중앙아시아의 여러 칸국과 초원 세력을 정복하고, 이어 페르시아, 이스파한, 바그다드, 시라즈 등 서남아시아 전역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심지어 1402년에는 오스만 술탄 바예지트 1세를 포로로 잡으며 아나톨리아까지 영향력을 미쳤다.[35]

유목 제국의 또 다른 사례인 몽골 제국(Mongol Empire)은 칭기즈 칸이 몽골, 타타르, 케레이트, 나이만 등 여러 부족을 통합해 1206년에 창건했다. 칭기즈 칸은 유목적 사회조직(천호·백호 체제)을 그대로 행정·군사 구조로 발전시켰고, 유목민의 기동력과 집단 충성 체계를 기반으로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1209년 서하, 1211년 금나라를 정복하여 중국 북부를 장악하고, 위구르 왕국과 중앙아시아를 복속시킴으로써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설립했다.[36]

아프리카의 줄루 왕국(Zulu Kingdom) 역시 유목적 역동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다. 줄루족은 농경과 목축을 병행한 반유목 사회로, 19세기 초 샤카(Shaka) 왕의 정치와 군사 개혁을 통해 강력한 중앙 권력과 군사 조직을 구축했다. 그는 여러 응구니 씨족을 무력으로 통합해 남아프리카 동부 대부분을 장악했으며, 2천 명 규모의 추장국을 불과 20

35 John E. Woods, *The Timurid Dynast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0), 48-64, 179-185.

36 Jack Weatherford, *Genghis Khan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New York: Crown, 2004), 190-191.

www.kci.go.kr

년 만에 수만 명 규모의 인구를 거느린 영토국가로 확장했다.[37]

마지막으로, 시간적, 지리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왕국에 가장 근접한 사례는 기원전 10세기의 에돔 왕국(Kingdom of Edom) 이다. 남부 요르단의 에돔 왕국은 다중 중심(polymorphic) 구조를 가진 반유목-반정착적 생활 양식을 공유한 정치체로, 유목과 목축, 정착 취락이 병존했다. 이들은 이집트 기록의 '샤수'와 연관된 부족으로, 이동 목축과 더불어 와디 페이난(Wadi Faynan)과 팀나(Timna) 지역에서 나는 구리를 채굴하고 제련하는 산업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 최근 발굴 결과 — 수천 개의 광산과 대규모 제련장, 폐기물층 등 — 는 이들이 고도로 조직된 산업 구조를 유지한 정치체를 이룩했음을 증명한다.[38] 이는 곧, 유목적 생활 양식과 정착 경제가 결합된 복합형 국가가 영토 확장과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이룰 수 있었음을 입증한다.

요컨대, 해당 사례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을 '정착국가'나 '제국'의 고전적 틀로만 이해하는 접근이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들의 왕국은 위의 사례들처럼, 오히려 유목적 전통과 혈연 중심 사회조직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정치적 통합과 외교적 확장을 이룩한 반유목적 복합국가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위와 같이 영토 확장에 성공한 가부장적 정치체들이 고고학적으로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은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을 평가할 때 단순히 고고학적 지표만으로 역사적 실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것을 뒷받침한다. 문헌상으로 해당 국가들은 자율성과 정체성, 그리고 독자적 이해관계를 지닌 다중의 지배

37 Elizabeth A. Eldredge, *The Creation of the Zulu Kingdom, 1815-1828: War, Shaka, and the Consolidation of Pow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42-51, 83-85.

38 Erez Ben-Yosef et al., "Ancient Technology and Punctuated Change: Detecting the Emergence of the Edomite Kingdom in the Southern Levant", *PLoS ONE* 14/9 (2019): e0221967, 7-24; Piotr Bienkowski and Juan Manuel Tebes, "Faynan, Nomads and the Western Negev in the Early Iron Age: A Critical Reappraisal", *PEQ* 156 (2024), 262-289.

www.kci.go.kr

단위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단위들은 전체의 최고 지도자인 왕의 권위를 상호 견제하는 구조로 기능했다. 가부장적 왕들은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각 친족-씨족, 부족, 지파 지도자들과의 협상과 연합을 계속 조율해야 했다.

그런데 다중 중심성을 보여주는 정치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소위 '왕권 강화'를 의미하는 단일 중심성(unicentrism) — 즉, 권력이 한 인물이나 집단, 수도에 집중되는 경향 — 과 공존해왔다. 그 결과, 이러한 정치체들은 반유목-반정착적 성향을 유지하면서도, 특정 왕의 카리스마적 리더십 아래 친족-씨족, 부족, 지파의 연합을 통한 영토 통합을 실현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은 주변 씨족, 부족 지파의 지도자나 왕이 전사하거나 사망하고 그 영토가 병합되고 주민이 복속되는 직접 통치(direct rule) 형태로 복속되었다. 또 다른 일부는 항복과 조공 진상을 통해 신하 국가임을 인정받는 간접 통치(indirect rule)의 형태로 왕의 지배권 안에 편입되었다.[39] 그러나 해당 정치체들은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사망 이후, 몽골 제국이나 줄루 왕국의 사례처럼, 불과 한두 세대 만에 작은 영토국가들로 분열되거나 해체되는 경우가 잦았다. 바로 이러한 단명성과 구조적 유동성이, 고고학적으로 그 흔적이 미약하게 남는 또 다른 이유일 것이다.[40]

성서의 기록에 나타난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 역시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성서는 다윗은 유다 산지, 블레셋 평야, 중앙 산지 일부를 직접 지배한 것처럼 언급한다(삼하 2:1-4; 5:1-9, 17-25; 6:1-17). 반면 성서는 다윗이 이즈르엘 평야, 벧산, 하롯 골짜기, 갈릴리 산지 등 북부 지역으로 자신의 왕국을 실제로 확장했는지에 대해서 침묵한다. 따라서

39 Faust and Farbe, *The Bible First Kings*, 343-344.

40 Faust and Farbe, *The Bible First Kings,* 285-290.

www.kci.go.kr

이 지역들이 다윗 왕국의 실효 지배 아래에 있었는지 확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성서가 사울이 이들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기록하는 것(삼하 2:9)을 고려할 때, 다윗도 군사적 점령보다는 정치적 통합의 형태로 해당 지역들에 영향력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 솔로몬의 왕국도 본질적으로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솔로몬의 행정 구역(왕상 4장)에 따르면, 솔로몬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의 이스라엘 영토를 직접 다스렸으나(4:25), 동시에 "유프라테스 강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과 애굽의 경계까지"의 여러 나라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4:21, 24). 즉, 후자의 지역들 경우는 직접 통치가 아닌 조공과 동맹을 통한 간접 지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구조는 앞서 언급한 영토 확장에 성공한 유목적 국가들의 사례들과 유사하다.

따라서 반유목·반정착적 성향을 보이는 친족-씨족, 부족, 지파 연맹체 구조를 지닌 정치체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성서는,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는, 혹은 덜 발견될 수 있는, 그들의 왕국이 '지파 연맹체-군장국-영토국가-제국'이라는 단선론적, 진화론적 정치체 발전 모델에 따른, 영토국가 혹은 제국의 모습과는 다르다고 서술한다. 더불어 이들의 왕국이 실질적인 영토 통합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이룩한 복합적 사회 체제였음을 시사한다.

물론 남부 레반트 지역은 본래 거대한 제국의 발흥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리적 경제적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 산악지대가 많아 잉여 생산량이 제한적이었고, 인구 밀도도 낮았다. 또한,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제국 사이의 완충 지대로서 외세의 영향권 안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기원전 10세기, 이 두 제국이 모두 일시적으로 쇠퇴하고 정치적 공백기(Political Vacuum)가 형성되었을 때, 새로운 주체 세력이 등장할 수 있었다. 이 시기는 또한 후기 청동기 말에 동지중해

www.kci.go.kr

지역 전역에 있었던 기후 변화의 여파가 점차 사라지고, 철기 시대가 도래하는 전환기에 이동성과 적응력이 높은 사회가 상대적 우위를 점하던 시기였다. 결과적으로, 기존 제국의 권력이 약화된 틈을 이용해 주변부의 유목 집단이 세력을 축적하고, 정착 공동체 위에 군림하는 보다 강력한 영토 확장 왕국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 역사적, 환경적 맥락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었다. 그들의 왕국을 고전적 의미의 영토국가나 제국이기보다는, 다중 중심적이고 유동적인 가부장적 통합체, 즉 유목성과 정착성이 교차하는 복합적 정치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3. 결론

본 연구는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을 최대주의와 최소주의로 양분된 기존 학계가 상정해온 '군장국', '영토국가,' 혹은 '제국'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였다. 첫째, '지파 연맹체-군장국-영토국가-제국'이라는 단선론적, 진화론적 정치제 발전 모델에 따라, 위의 세 가지 개념으로 기원전 10세기 고대 이스라엘의 정치체를 설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며, 실제 사회 구조의 복합성을 간과한다. 둘째,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에 기록된 고위 관리 목록과 회중(장로) 제도에 대한 역사비평적 재독해는, 다윗과 솔로몬의 행정 체제가 혈연과 친족 관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점차 기능과 역할이 분화된 초기 국가의 관료제의 형태를 띤 것을 증명한다. 다윗 왕국의 행정 조직은 단순하지만 군사적 충성과 동맹을 중심으로 작동했고, 솔로몬의 체제는 보다 제도화된 행정 구역과 조공 체계를 도입했음에도 여전히 친족-씨족, 부족, 지파적 전통과 협의 구조를 내포하고 있었다. 셋째, 이들의 정치체

www.kci.go.kr

의 성격은 단일 중심적 제국이라기보다, 친족-씨족, 부족, 지파적 연맹성과 군장국 성향의 행정적 조직화가 병존하는 다중 중심적 복합 왕국을 띠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은 반유목-반정착 사회 전통 속에서 형성된 협의적 연합적 왕권체로서, 기원전 10세기 남부 레반트의 지리적 한계와 당시 흥기하는 제국들의 부재, 그리고 사회적 이동성의 증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등장한 정치적 산물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왕국은 단순히 군장국 혹은 영토국가나 제국이라는 확정된 개념적 '틀'보다는, 유연적 유동성에 근거한 '전환기적 정치체'로 평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유윤종 "고대 이스라엘 역사 찾기와 고고학: 수정주의자와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4 (2004), 105-127.

강후구, "고대 이스라엘 역사와 역사서술: 최근 통일 왕국 시대 고고학 발굴 결과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93 (2024), 9-51.

김영진, "단 석비와 이스라엘 역사", 「구약논단」 13 (2002), 107-127.

Aharoni, Yohanan, *The Land of the Bible: A Historical Geography*, revised edition (Philadelphia: Westminster, 1979).

Albright, W. F., "The Gezer Calendar", *BA* 6 (1943), 135-142.

Alt, Albrecht, "Die Landnahme der Israeliten in Palästina", *Beiträge zur Wissenschaft vom Alten und Neuen Testament* 12 (1913), 1-62.

Andersen, F. I., "Israelite Kinship Terminology and Social Structure", *The Bible Translator* 20 (1969), 29-39.

Bar, Shaul, "Saul: The State Builder", *OTE* 36 (2023), 605-624.

Ben-Yosef, Erez, "The Architectural Bias in Current Biblical Archaeology", *VT* 69 (2019), 361-387.

Ben-Yosef, Erez, "Rethinking the Social Complexity of Early Iron Age Nomads", *JJA* 1 (2021), 155-179.

www.kci.go.kr

Ben-Yosef, Erez, and Zachary Thomas, "Complexity Without Monumentality in Biblical Times", *JAR* 32 (2024), 59-101.

Ben-Yosef, Erez, et al., "Ancient Technology and Punctuated Change: Detecting the Emergence of the Edomite Kingdom in the Southern Levant", *PLoS ONE* 14/9 (2019), e0221967, 7-24.

Bienkowski, Piotr, and Juan Manuel Tebes, "Faynan, Nomads and the Western Negev in the Early Iron Age: A Critical Reappraisal", *PEQ* 156 (2024), 262-289.

Bright, John, *A History of Israel*, 3rd e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0).

Campbell, Antony F. *1 Samuel* (FOTL 7; Grand Rapids: Eerdmans, 2003).

Davies, Philip R., *In Search of Ancient Israel* (Sheffield: JSOT Press, 1992).

Dever, William G., *Beyond the Texts: An Archaeological Portrait of Ancient Israel and Judah* (Atlanta: SBL Press, 2017).

Dietrich, Walter. *1 Samuel* (BKAT VIII/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11).

Eldredge, Elizabeth A., *The Creation of the Zulu Kingdom, 1815-1828: War, Shaka, and the Consolidation of Pow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Faust, Avraham, *Israel's Ethnogenesis: Settlement, Interaction, Expansion and Resistance* (London: Equinox, 2006).

Faust, Avraham, *The Archaeology of Israelite Society in Iron Age II*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12).

Faust, Avraham, "The 'United Monarchy' on the Ground: The Disruptive Character of the Iron Age I-II Transition and the Nature of Political Transformations", *JJA* 1 (2021), 15-67.

Faust, Avraham, and Zev I. Farbe, *The Bible First Kings: Uncovering the Story of Saul, David, and Solom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5).

Finkelstein, Israel, and Neil A. Silberman, *The Bible Unearthed: Archaeology's New Vision of Ancient Israel and the Origin of Its Sacred Texts* (New York: Free Press, 2001).

Flanagen, James W., "Chiefs in Israel", *JSOT* 6 (1981), 47-73;

Fleming, Daniel E., *Democracy's Ancient Ancestors: Mari and Early Collective Govern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Frick, Frank S., *The Formation of the State in Ancient Israel: A Survey of Models and Theories* (SWBA 4; Sheffield: Almond, 1985).

Fritz. Volkmar and Philip R. Davies (eds), *The Origins of the Ancient Israelite States*

www.kci.go.kr

(JSOTSup 228;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Gibson, Dan, *The Nabataeans: Builders of Petra* (Ontario: Black, 2007).

Gottwald, Norman K., *The Tribes of Yahweh: A Sociology of the Religion of Liberated Israel, 1250-1050 BCE* (Maryknoll, NY: Orbis Books, 1979).

Halpern, Baruch, *David's Secret Demons: Messiah, Murderer, Traitor, King* (Grand Rapids: Eerdmans, 2001).

Hutton, Jeremy M., "Mahanaim, Penuel, and Transhumance Routes: Observations on Genesis 32-33 and Judges 8", *JNES* 65 (2006), 161-178.

Joffe, Alexander H., "Defining the State", in *Enemies and Friends of the State*, ed. Christopher Rollston (University Park, PA: Eisenbrauns, 2018), 3-23.

Kalimi, Isaac, *Writing and Rewriting the Story of Solomon in Ancient Israe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Keimer, Kyle H., "Evaluating the 'United Monarchy' of Israel: Unity and Identity in Text and Archaeology", *JJA* 1 (2021), 68-101.

Klein, Ralph W. *1 Samuel* (WBC 10; Waco, TX: Word Books, 1983).

Lee-Sak, Yitzhak, "The Solomonic Districts and the Nimshide Dynasty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Southern Levant", *Religions* 14 (2023), Art. No. 598.

Lemche, Niels P., *Ancient Israel: A New History of Israelite Society* (Sheffield: JSOT Press, 1988).

Lemche, Niels P., "Ideology and the History of Ancient Israel", *SJOT* 14 (2000), 165-193.

Liverani, Mario, *Israel's History and the History of Israel* (London: Equinox, 2005).

Master, Daniel M., "State Formation Theory and the Kingdom of Ancient Israel", *JNES* 60 (2001), 117-131.

Mazar, Amihai, "Archaeology and the Biblical Narrative: The Case of the United Monarchy", in *Israelite Identity in Transition: The Archaeology of Western Samaria,* eds. T. E. Levy et al. (Atlanta: SBL Press, 2010), 265-280.

Mazar, Amihai, *Biblical Archaeology: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McCarter P. Kyle. Jr., *I Samuel* (AB 8; Garden City, NY: Doubleday, 1980).

Na'aman, Nadav, "The List of David's Officers (šālîšîm)", *VT* 38 (1988), 71-79.

Pfoh, Emanuel O., "Dealing with Tribes and States in Ancient Palestine", *SJOT* 22 (2008), 86-113.

www.kci.go.kr

Porter, Anne, *Mobile Pastoralism and the Formation of Near Eastern Civilizations: Weaving Together Socie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Rainey, Anson F., "Notes on Some Proto-Sinaitic Inscriptions", *IEJ* 25 (1975), 106-116.

Renfrew, Colin, and Paul Bahn, *Archaeology: Theories, Methods, and Practice*, 7th ed. (London: Thames & Hudson, 2022).

Reviv, Hanoch, *The Elders in Ancient Israel: A Study of a Biblical Institution* (Jerusalem: Magnes Press, 1992).

Richelle, Matthieu, *The Bible and Archaeology* (London: Bloomsbury T&T Clark, 2016).

Schniedewind, William, *The Finger of the Scribe: How Israel's Script Created the Bibl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Stager, Lawrence E., "The Archaeology of the Family in Ancient Israel", *BASOR* 260 (1985), 1-36.

Stager, Lawrence E., "The Patrimonial Kingdom of Solomon", in *Symbiosis, Symbolism, and the Power of the Past: Canaan, Ancient Israel, and Their Neighbors from the Late Bronze Age through Roman Palaestina*, eds. William G. Dever and Seymour Gitin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3), 63-74.

Thomas, Zachary, "On the Archaeology of 10th Century BCE Israel and the Idea of the 'State'", *PEQ* 153 (2021), 244-257.

Thomas, Zachary, and Erez Ben-Yosef, "David and Solomon's Invisible Kingdom", *BAR* 49 (2023), 40-45.

Thompson, Thomas L., *The Mythic Past: Biblical Archaeology and the Myth of Israel* (London: Basic Books, 1999).

Trigger, Bruce G., *A History of Archaeological Thought,*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Tsumura, David T., *The First Book of Samuel* (NICOT; Grand Rapids: Eerdmans, 2007).

Wagner-Tsukamoto, Sigmund, "State Formation in the Hebrew Bible: An Institutional Economic Perspective", *JSOT* 37 (2013), 391-422.

Weatherford, Jack, *Genghis Khan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New York: Crown, 2004).

Weber, Max,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www.kci.go.kr

Woods, John E., *The Timurid Dynast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0).
Wright, G. Ernest, *Biblical Archaeolog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2).
Wright, G. Ernest, "The Provinces of Solomon", *Eretz Israel* 8 (1967), 58-68.

검색어

다윗-솔로몬 정치체제, 다중 중심적 왕국, 반유목왕정, 씨족-친족/부족-지파 연계, 군장국-관료제의 공존, 삼하 8, 20 / 왕상 4장, 건축중심편향 비판

www.kci.go.kr

[ABSTRACT]

Rethinking the David-Solomon Polity: A Transitional, Semi-Pastoral, Polymorphic Kingdom Characterized by Kinship, Tribal Institutions, Chiefdom-Style Leadership, and Nascent Administration

Yitzhak Lee-Sak
Yonsei University

Building on the recent proposals of Erez Ben-Yosef and Zachary Thomas, this study offers a critical reassessment of the Davidic-Solomonic polity against the polarized maximalist-minimalist landscape to challenge the habitual recourse to "chiefdom", "territorial state", or "empire" as primary explanatory frames. First, it argues that linear, evolutionary models of political development — from tribal confederation to chiefdom, then to state/territorial state and empire — tend to overdetermine the tenth-century BCE Israelite case and thereby obscure the genuinely composite texture of its social organization. Second, through a historical-critical rereading of the lists of the royal officials and the institutions of tribal assembly and elders in the Samuel-Kings corpus, the study contends that David and Solomon governed a political-administrative order fundamentally anchored in kinship relations, yet marked by forms of functional differentiation consistent with an incipient bureaucracy. David's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appears relatively limited, operating primarily through military networks of loyalty, personal retinues, and negotiated alliances. Solomon's regime, while introducing more formalized districts

www.kci.go.kr

and mechanisms of provisioning and tribute, nonetheless presupposes clan-, lineage-, and tribal-based authority as well as deliberative modes of governance. Third, the polity's institutional profile is best described not as a monocentric state or an empire but as a polycentric, composite kingdom in which clan-kinship structures, tribal-lineage confederative elements, and chiefdom-like dynamics coexisted with emerging processes of administrative rationalization. More broadly, the David-Solomon kingdom is interpreted as a negotiated, coalition-based kingship that took shape within semi-pastoral and semi-sedentary traditions under tenth-century southern Levantine conditions — constrained agrarian surplus, a temporary imperial vacuum, and heightened mobility. Accordingly, its historical plausibility should be assessed less by the monumental signatures typically expected of chiefdoms, territorial states, or empires than by the flexibility, adaptability, and contingent integration characteristic of transitional polities.

key words

David-Solomon Polity, Polymorphic Kingship, Semi-pastoral Monarchy, Clan-Kinship-Tribe-Confederation Nexus, Chiefdom-Bureaucracy Coexistence, 2 Samuel 8, 20 / 1 Kings 4, Critique of Architectural Bias

투고일 : 2026년 01월 31일
심사일 : 2026년 02월 15일
게재 확정일 : 2026년 02월 19일

www.kci.go.kr